

<④ 인터뷰 2 –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 “고등교육과 과학기술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대담 | 이덕환 \_ 본지 편집인



**Q. 새로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김도연 장관님을 모시고 새 정부에서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이라는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진흥 체제가 동시에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등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0년 전통의 교육부와 40년 전통의 과기부의 융합을 통해 고등교육과 과학기술이라는 국가발전의 양축이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과학기술계가 큰 기대를 걸었던 혁신본부가 3년 만에 폐지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본부장을 역임하셨던 차관의 입장에서는 더욱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간 운영됐던 혁신본부는 R&D 예산의 배분, 출연연 관리 등 과학기술 핵심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했는데 폐지가 돼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큼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혁신본부가 담당했

던 과학기술정책의 많은 부분이 인계가 됐습니다. 거대과학이나 기초과학의 연계성은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맞물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제2차관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제2차관 산하에는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등 2개의 실과 국제협력국, 원자력국이 설치돼 기존 과기부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교육부에서 수행하던 학술연구 업무를 흡수해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책실에서는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 성과관리, 우주정책, 핵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학술연구정책실에서는 대학자율화 추진단과 함께 이전 교육부에서 대학입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대학지원국 업무가 배정돼 제반 대학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의 융합을 통해 과기부와 교육부의 연구개발 대학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출연(연)과 대학의 협력 모델 개발 및 학·연 간 인력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아직도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제2차관 업무를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운데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요?**

두 개의 경쟁체제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원천연구의 중심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다만 산업기술과 관련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과 연관된 기초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기초·원천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뚜렷하게 영역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부처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초·중등학교 교육 업무를 지자체에 넘기고 대학입시 업무를 정리한다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학자율화를 얘기하지만 대학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술연구정책실을 떠맡게 됨으로 해서 과거 과기부 업무에 시간을 쓸 상황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현안에 함몰돼 중요한 과학기술정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적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책적 관심을 갖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학술연구정책실과 관련해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대학의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연구정책실'은 본래 교육부 업무였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인문사회계의 학술연구 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될 텐데요. 인문사회, 예술 분야에 밀려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대학의 기초과학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균형의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과학의 고유한 영역은 인정을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 사회를 혁신해 나가는 역할 등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자가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융합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학술연구정책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제고'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특히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투자 비중을 전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2012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50%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간 총 24조8천억 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총괄기획·조정체계 강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정부 연구개발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개선 및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초연구투자와 개인·소규모연구 지원 확대, BT·NT 융합기술 등의 육성을 통해 대학의 지식창출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가 서로 외면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통합설이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은 상호 간에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되 양자의 기능이 조화를 이뤄 선순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기능 정립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Q. 공공기술연구회가 해체되고, 산업기술연구회가 지식경제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출연연이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셈입니다.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도 달라지겠지요?**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연연의 특성화와 전문화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연연을 기초·원천기술 및 공공·거대과학을 중점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다음으로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연연 간에는 거대과학 융합기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파견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출연연과 대학 간에는 출연연 연구원의 대학 겸임교수 발령, 출연연의 학위 부여, 출연연과 대학의 학과 공동운영 등을 통해 협력 성공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연 연구 성과 확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기관을 설립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Q.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연금'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더불어 출연연 연구원의 복지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출연연 연구원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먼저, PBS 등 정부출연(연)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관 고유사업 예산을 3년 간 50% 이상 증액하고 인건비의 70%를 기관 고유사업으로 보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연구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기술료 인센티브를 35%에서 50%로 확대하고 정년퇴직 후에도 기술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인연금제도의 정착입니다. 현재 정부출연금으로 1천억 원이 조성돼 있는데 향후 5년 간 1

천억 원을 추가해 총 2천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으로 퇴직 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구원의 활용입니다. 고경력 원로과학기술자를 최신 과학기술정보 분석 및 과학관 해설 등에 활용하는 '원로과학기술인활용사업'과 '테크노닥터'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지난해 말에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정 작업을 하게 될까요?**

향후 5년 간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하였으나 새 정부의 과학기술관련 공약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한 5대 공약사항은 과학기술투자 확대, 융합신산업 창출, 세계적인 과학인재 양성·유치, 과학기술인에게 창의성과 자율성 부여, 과학기술 대중화 등이었는데,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지표 및 정책과제를 수정·보완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벤처 및 중소기업육성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보완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오는 4월에 국무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입니다.

**Q. '거대과학지원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십시오.**

거대과학지원관은 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게 되며, 우주정책과, 우주개발과, 거대과학협력과, 핵융합연구과 등 4개의 과로 이루어집니다. 거대과학 분야는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환경, 에너지 등 인류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므로 최근 국가마다 정부 중심으로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거대과학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K-STAR 같은 경우도 4천억 원대가 투자됐고 앞으로 조 단위로 투자가 되는 사업이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 혁신본부장 때보다 분야도 더 넓어지고 역할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차관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무엇보다도 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